

검사 및 시술을 위한 진정진료지침서 발간 안내

진정진료지침 발간 안내

임상진료지침개발 소위원회 김상현 위원장

진정진료지침 발간소식을 전하며

존경하는 마취통증의학회 회원님들께,

대한마취통증의학과 산하 임상진료지침위원회에서 개발한 “검사 및 시술을 위한 진정진료지침”이 올해 6월 말부터 두 달여 간의 대한의학회 심사를 거쳐 지난 9월13일 대한의학회 지침평가 기준을 만족하는 진료지침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아닌 의사가 시행하는 진정의 시행 건수가 많아지고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 당시 21대 최인철 이사장님의 제안으로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주도로 진정진료지침을 개발 및 배포하여 진정 전문가인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진정 행위에 대한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타과 의사들이 시행하는 진정에 있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나아가 진정관련 교육 및 제반 환경 조성을 본 학회 주도로 선점하고자 본 진료지침의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진정을 시행 받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서는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하는 진료지침 본연의 목적은 물론이고, 대한의학회의 평가 기준을 통과한 대한의학회인증 진료지침으로 발간되도록 하여 질의 객관성과 우월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진정을 시행하는 임상과가 많은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취통증의학과 단독으로 진료지침을 개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진정을 시행하는 대표적 학회를 개발단계에서부터 포함하기로 하고, 2019년 8월 12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회의실에서 학회별로 추천한 위원들과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임상진료지침 위원들이 진정 임상진료지침 개발 방향을 토의하였고 그 후 총3년여의 개발기간을 거쳐 완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발방식은 완전히 새롭게 개발하는 De Novo방식을 택하였고, 개발과정 각 단계마다 수 차례 교육과 회의를 거쳤습니다. 개발기간 중 코로나 대유행이 발생하여 일정이 미뤄지는 등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기도 하였고, 2021년 1월 1일 이후 대한의학회에서는 평가 신청 지침의 인정기준을 강화하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간 해오던 방식에 더하여 방법론적으로 더 엄격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특히 이해당사자의 참여 항목에서 반드시 60%이상의 점수를 득해야 한다는 조건이 생김으로써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방법론 전문가를 영입하여 인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헌 근거가 없는 핵심질문은 설문을 통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도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개발과정에서 개발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셨으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긴 시간 개발과정에도 든든하게 지원해주신 현 김재환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검사 및 시술을 위한 진정진료지침서 발간 안내

대한의학회 진료지침 질 평가에서도 진료지침 개발의 방법론을 충실히 따른 문헌검색과 근거수준의 평가 과정 등이 돋보이는 진료지침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실제 임상에서 사용할 만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한 것이 미흡한 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는 향후 임상에서 실제로 보급 및 사용해 나가면서 개정판에서는 수정 보완을 거쳐 더 나은 진료지침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합니다.

진정진료지침이 회원님들의 실제 임상에서 사용시에 세부적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으나 마취통증의학과 주도로 개발한 국내 최초의 다학제 진정임상진료지침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상진료지침위원장 김상현 드림

